# 무식하게 풀기(brute-force)란?

- 1. 완전 탐색(exhaustive search)이라 부르기도 하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는 알고리즘이다.
- 2. 가령, 해, 달, 별을 상징하는 패 세 장을 덮어 놓고 별 달 해 순으로 카드를 뽑는 순서를 출력하라 하면 간단하게 모든 카드를 하나씩 뒤져보며 그와 같은 순서가 나올 때까지 뒤져 보면 될 것이다.

## 시간 복잡도 연습

- 1. 완전 탐색은 시간 복잡도 연습하기에도 좋다.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지기에 전부 계산을 하면 결국 그 수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. 또한, 반 복문 중첩을 통해 경우의 수를 전부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반복의 수만으로 대략적인 시간 복잡도 계산이 가능하다.
- 2. 그렇기에 이번 완전 탐색에서는 문제 풀기와 동시에 시간 복잡도 계산 연습도 동시에 할 것이다.
- 3. 주먹구구식 연산 방법
  - 알고리즘 대회를 참여하거나 문제를 풀 때, 시간 초과로 답안이 틀렸다고 나온 걸 본 적이 있는가?
  - 위 사항을 겪었다면 그대는 일단, 주먹구구식 연산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.
  - 대략, 1초당 1억번 연산을 한다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자. 그럼 어느새 2초를 넘어가는 내 알고리즘을 볼 수 있을 것이다.

## 재귀 호출과 완전 탐색

- 1. 재귀는 큰 수부터 시작해 더는 쪼개지지 않을 때까지 나누고 나눈다. 즉, 반복문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 점차 큰 영역을 정복해 나간다면 반대로 재귀는 큰 영역을 쪼개고 쪼개어 마지막의 작은 조각(기저 사례)에 도달할 때까지 나아간다.
- 2. 보통, 반복문과 달리 재귀는 평소 사람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연산 방식과 반대라 머리도 아프고 식 정립도 잘 안되지만, 완전 탐색을 통해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다. 왜냐하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지니까 결국 기저 사례도 쉽게 고안할 수 있기 떄문이다.
- 3. 위 사항을 고려하여 완전 탐색 문항 중에서는 재귀로 풀라는 조건이 있는 문제도 나올 것이다.
- 4. 재귀는 성능도 반복문보다 떨어지는데 왜 연습하나요?
  - 단순히 괴롭히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재귀를 잘만 이용하면 반복문 쓰는 시간보다 훨씬 코드 작성 시간이 줄어든다. 또한, 복잡한 계산 이 필요할 수록 차라리 재귀로 다 쪼개고 컴퓨터가 내부 연산은 알아서 해주는 게 머리가 덜 아플 때가 놀랍게도 있다!
- 5. 재귀 호출을 이용한 완전 탐색 문제
  - n 개의 원소 중 m 개를 고르는 모든 조합을 찾는 알고리즘

#### • 보글 게임

- 5×5의 알파벳 격자에 각각 알파벳을 넣고 원하는 문자 조합을 찾아내는 것
- 조합은 연속된 문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자는 격자 간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.
- 왜 완전 탐색인가?
  - 원하는 문자 조합을 찾는다 : 무수한 경우의 수에서 답을 뽑아야 함
  - 연속된 격자로 이루어진다 : 인접칸을 뒤져가며 해당 조합이 있는 지 하나하나 손수 수를 다 따져봐야 함
- 문제 분할
  - 격자 중에서 문자 조합의 가장 첫번째 문자와 일치하는 문자의 위치를 찾는다.
  - 해당 문자의 인접 격자를 하나씩 뒤지고 만약 두번째 문자와 일치하는 경우 다시 인접 격자를 찾는다.
  - 일치하는 문자가 없으면 다시 전으로 돌아가고 이전 행위를 반복한다.
- 기저 사례
  - 현재 가리키고 있는 격자의 위치가 격자 범위(5x5) 바깥에 있으면 실패
  - 현재 가리키고 있는 격자의 문자가 원하는 문자가 아닌 경우 실패
  - 더는 검사할 문자가 없으면(문자 조합을 찾은 경우) 성공
- 위의 내용을 고려하여 코드로 작성하면 아래와 같음

```
const int dx[8] = \{-1, -1, -1, 1, 1, 1, 0, 0\};
const int dy[8] = \{-1, 0, 1, -1, 0, 1, -1, 1\};
bool hasWord(int y, int x, const string word) {
       if (!inRange(y, x)) return false;
       if (board[y][x] != word[0]) return false;
       if (word.size() == 1) return true;
       for (int direction = 0; direction < 8; ++direction) {</pre>
                int nextY = y + dy[direction];
                int nextX = x + dx[direction];
               // 다음 칸이 범위 안에 있는 지, 첫 글자가 일치하는 지 확인은 불필요
               if (hasWorld(nextY, nextX, word.substr(1))) return true;
       return false;
```

- 시간 복잡도 분석
  - 마지막 글자에 도달하기 전에 주변의 모든 격자를 재귀 호출함
  - 각 격자 주변에는 최대 여덟 격자가 존재하고 탐색은 단어의 길이 N에 대해 N-1단계 진행함
  - 결과, 8^(N-1)이고 이를 시간복잡도로 나타내면 O(8^N)으로 수렴

# 재귀 호출과 부분 문제

- 1. 재귀 호출은 문제를 나누는 것에서 시작한다.
- 2. 보글 게임을 예시로 든 부분 문제
  - 현재 위치 (x, y)에서 단어의 첫 글자가 있는가?
  - 윗칸 (y 1)(x)에서 시작해서 단어의 나머지 글자들을 찾을 수 있는가?
  - 좌측 윗칸 (y 1)(x 1)에서 시작해서 단어의 나머지 글자들을 찾을 수 있는가?

• ...

• 위 내용을 보듯이 살펴봐야 하는 격자와 단어 개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든다. 이처럼 문제를 분할하여 지속적으로 동일한 계산법으로 계산이 이루어지면 재귀를 사용할 수 있다.

### 최적화 문제

- 1. 정의: 문제의 답이 여러개인 경우, 해당 답안 중에서 가장 좋은 답안을 찾는 것
- 2. 예시
  - n 개의 사과 중에서 r개를 골라서 무게의 합을 최대화한다
  - n 개의 사과 중에서 r개를 골랐을 때, 개중에서 가장 무게가 큰 사과와 가장 무게가 작은 사과의 무게 차이를 최소화한다
- 3. 여행하는 외판원 문제(TSP)
  - 문제
    - 어떤 나라에 n(2<= n <= 10) 개의 도시가 있다. 한 영업 사원이 한 도시에서 출발해 다른 도시들을 전부 한 번 씩 방문한 뒤 시작 도시로 돌아오려고 한다.
    - 각 도시들은 전부 도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해당 도로들을 이용하여 외판원이 돌 수 있는 가장 짧은 경로를 구하라
    - 연산 시간 : 1초 이내
  - 해결 방법
    - 경우의 수를 계산해보자. 모든 도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은 (n-1)!이다. 만약 10개 도시면 9!이며 이는 362,880이다. 어림짐 작 연산으로 1초에 1억번이니 충분히 1초 이내로 계산 가능한 수준이다. 그러므로 완전 탐색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.
    - 재귀로 풀 수 있는가?
      - 부분 문제 : 현재 도시에서 다음 도시로 가면 방문해야 할 도시수가 줄어들고 줄어든 도시에서 동일한 계산으로 다음 도시를 찾아냄. 결국, 부분 문제가 성립하고 동일 계산식을 사용하므로 재귀가 가능함
    - 기저 사례
      - 모든 도시를 방문했을 때 시작 도시로 돌아가고 종료한다

```
int n; // 도시의 수
double dist[MAX][MAX]; // 두 도시 간의 거리를 저장하는 배열
// path : 지금까지 만든 경로
// visited : 각 도시의 방문 여부
// currentLength : 지금까지 만든 경로의 길이
```

```
double shortestPath(vector<int>% path, vector<bool>% vistied, double
currentLength) {
       if (path.size() == n)
                return currentLength + dist[path[0]][path.back()];
       double ret = INF; // 매우 큰 값으로 초기화
       for (int next = 0; next < n; ++next) {</pre>
                if (vistied[next]) continue;
                int here = path.back();
               path.push_back(next);
                double cand = shortestPath(path, visited, currentLength +
               dist[here][next]);
                ret = min(ret, cand);
               visited[next] = false;
               path.pop_back();
        return ret;
```

# 그래서 언제 완전탐색을 쓰면 좋은데요?

- 1. 지수적으로 시간이 증가하더라도 절대적으로 구해야하는 후보의 가짓수가 적은 경우
  - 보글 게임을 예로 들면, 단어 길이가 적고 격자 개수가 적으면 결국 필요한 경우의 수가 줄어든다. 요구하는 시간과 메모리 확보에 문제가 없으면 굳이 머리를 쓰면서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 구상에 시간을 소모하느니 완전탐색으로 빨리 끝내고 다음 일로 넘어가는 게 효율적이다.
- 2. 효율적이 알고리즘이 떠오르지 않고 시간은 촉박한 경우
  - 시간이 부족한데 알고리즘을 떠올릴 시간이 어디 있는가? 내 인내심은 괜찮을 지 몰라도 상사의 인내심이 과연 기다려줄 지 알 수 없을 때는 일단 가장 간단한 완전탐색으로 해결하는 걸 시도하자. 그 다음에 만족하지 못하는 수치에 도달했을 때, 알고리즘을 다른 걸로 구성하는 게 적어도 내 정신건강에는 좋다.

#### 3.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를 만났을 때

- 일단, 완전탐색을 통해 풀어보고 거기서 생각을 확장하여 완전정복이 가능하니 DP나 그리디 등. 타 알고리즘을 떠올리는 게 문제 해결을 위한 빠른 출구가 될 수 있다.
- 또한, 기계적인 코딩 테스트가 아닌 기술 면접에서 간단하게 낸 문제인 경우, 일단 완전탐색으로라도 시도해 보는 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. 적어도 손 놓고 멍 때리다가 못하겠다고 던지는 것보다는 백 배 낫다.